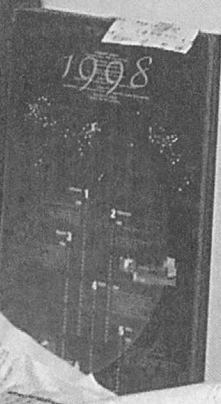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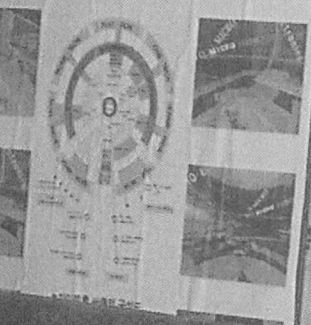


MICRO  
BZIFONICA  
MICRO-L



塔城  
青島·典範  
Retail Shops in ANLV  
STORE SIGNS  
COMMERCIAL BUILDING FACADES

SE99



서가풍경

# 오래된 골목길처럼 들어가보고 싶은 편안함

건축가 김진애씨의 서가

길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일단 길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. 길의 역설이다. 서울포럼 사무실이 있는 논현동 '제가죽집' 1층에 있는 건축가 김진애씨(46)의 서가는 사방으로 길이 나 있는 골목길처럼 보인다. 무심코 발을 내밀었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것만 같다. 그러나 호기심이 쉬 동하는 사람이라 한 걸음만 더 내디딘다면 이전에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만날 수 있다.

김진애씨는 이를 가리켜 'cluttered organize' 라고 일컫는다. 읊기자면 '뒤죽박죽인 체계' 정도. 물론 지하와 1층에 걸친 그의 서가는 건축 관련서와 행정서류, 보고서, 도면, 시방서, 스크랩 등으로 채워져 있다. 하지만 그 길이 반듯하리라고만 생각하면 실수다. 그 사이사이에 《바이블코드》, 반다인의 추리소설, 칼비노의 《보이지 않는 도시》 등의 책이 숨어 있다. 도시 속에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가 모두 담겼듯 그가 생각하는 건축 속에 이 모든 책이 들어 있다.

서가 앞에서 그는 지금 새로운 인사동의 모습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청소년센터를 구상하고 있다. 그는 새로 만들기보다 다르게 만든다. 작업이나 서가에서 편안함이 느껴진다면, 파괴를 전제로 한 창조가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창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.

— 김연수 기자

